

**1.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랑은 반드시 “실천”되어야 한다.**

25)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와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하고 물었다.

26) 예수님이 그에게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으며 너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고 다시 물으시자

27) 그는 “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시다.”하고 대답하였다.

신명기 6:5

당신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레위기 19:18b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여라.

28)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네 말이 옳다.
그대로 실천하여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하고 말씀하셨으나

29) 그 율법학자는 자기가 옳다는 것을
보이려고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하고
예수님께 물었다.

30)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들은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반쯤 죽은 것을
버려 두고 가버렸다.

**31)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는 피해서 지나갔다.**

32) 그리고 어떤 레위 사람도 그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는 피해서 지나갔다.

**II.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를 묻기보다
“내가 어떻게 이웃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한다는 것입니다.**

**33)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그 길로 지나다가 그를 보고 불쌍한 생각이
들었다.**

34) 그래서 다가가서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후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까지 데리고 가서 간호해 주었다.

35) 이튿날 그는 두 데나리온을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보살펴 주시오.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갚아 드리겠소'하고 부탁하였다.

36) 그러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37) 그때 율법학자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긴
사람입니다.”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은
그에게 “너도 가서 그와 같이
실천하여라”하고 말씀하셨다.